

# 국제 보건복지 연구 동향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 은퇴 전후의 기능적 건강 저하

### Functional health decline before and after retirement: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 van Zon, S. K. R., Bültmann, U., Reijneveld, S. A., & Mendes de Leon, C. F. 2016. *Social Science & Medicine*, 170, pp.26-34.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은퇴 이전과 이후의 기능적 건강(functional health) 변화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며 둘째, 사회경제적 위치가 은퇴 전과 후의 기능적 건강 변화들을 어느 정도로 조절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건강은퇴조사(Health and Retirement Study)의 1992~2012년 자료를 사용하여 종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16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은퇴 이전과 이후의 이동 제약과 대근육(large muscle) 기능의 경로를 계산하기 위해

일반화된 추정 방정식(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s)을 포함한 일반선형모델로 각각을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은퇴 이전과 이후 건강의 변화를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 세 개와 은퇴 전후 시점의 상호작용항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은퇴 이전 연도들에서 이동의 제약과 대근육 기능의 평균 수준들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증가는 은퇴 이후 천천히 줄어들었으며, 이는 대근육 기능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났다.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은퇴 이전 기능적 제약들의 점진적인 증가와 연관되어 있었다. 은퇴 이후에는 오직 부(wealth)만이 이동 기능 제약의 증가 조절과 관련해 약간 불분명한 유형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고령 근로자의 기능적 건강 저하 예방은 더 길고 건강한 노동 생활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이것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개인들에게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개인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높은 사람들보다 은퇴 이후에 기능적 건강의 저하를 더 크게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성인 자녀와의 동거가 고령 부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Under one roof: The effect of co-residing with adult children on depression in later life**

■ Courtin, E., & Avendano, M. 2016. Social Science & Medicine, 2016, pp.140-149.

성인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의 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그러나 대침체(Great Recession)에 의해 경기가 악화된 최근 상황은 세대 간 동거의 증가를 불러왔다.

본 연구는 유럽 국가들에서의 세대 간 동거가 고령자 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의 2004~2010년 세 웨이브의 자료를 사용해 분석하였다(n=50,043).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성인 자녀와의 동거가 Euro-D 우울지수로 측정된 우울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대침체 동안의 성인 자녀 고용 기회의 외생적인 변량을 추출하는 도구변수접근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동거 수준과 고령자의 우울 수준이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 대부분에서 동거 수준과 고령자의 우울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측정된

특성들을 통제한 OLS(ordinal least squares) 모델에서는 성인 자녀와의 동거와 고령 부모 우울 증상 간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beta=-0.0387$ ; 95% CI -0.0892 to 0.0118). 대조적으로 도구변수모델의 결과는 성인 자녀와의 동거가 우울 증상을 12개 항목 점수에 대해 0.731점만큼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 준다(95% CI -1.261 to -0.200). 이 결과는 아동 특성, 국가별 시간 추세, 집을 소유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개의 강건성 검사에서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유럽에서 대침체기의 높은 실업률을 배경으로 나타난, 성인 자녀와 고령 부모 간 동거 형태의 세대 간 교류 증가가 고령 부모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소비 불평등과 가구 노동 공급  
Non-contributory pensions.**

■ Galiani, S., Gertler, P., & Bando, R. 2016. Labour Economics, 38, pp.47-58.

비기여 연금제도는 점차적으로 여러 국가들에서 노인빈곤을 줄이기 위한 보편적인 방안이 되고 있다. 비기여 연금은 연금 수급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웰빙을 이끌어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멕시코에서 도입된 비기여 연금이 수급자의 정신건강과 수급자 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2007년 멕시코에서는 시골에 거주하는 71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비기여 연금제도인 'Adultos Mayores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수급자 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현재 210만 명이 수급을 받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멕시코 국내총생산(GDP)의 약 0.1%이다. 이는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사회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고령자의 정신건강과 고령자 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목표 그룹이 외생적인 지리적 요인과 연령에 의해 구분된다는 점에 의존한 준실험 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이 프로그램에 따라 연금을 받는 고령자의 정신건강이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노인우울지수(Geriatric Depression Scale)의 점수가 10% 감소하였다. 또한 유급 근로를 하는 수급자의 비율이 20% 감소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무급 가족 종사자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대상 가구들의 소비지출은 크게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들(developing countries)의 빈곤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기여 연금 계획이 빈곤한 고령자의 삶을 개선해 웰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침체의 상흔

#### Scars of recessions in a rigid labor market

■ Cockx, B., & Ghirelli, C. 2016. Labour Economics, 41, pp.162-175.

2008년의 대침체와 이것이 청년 실업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경제침체기 청년 졸업자의 경력 전망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최근의 공적 논의들에서 지배적인 시각은 대침체가 잃어버린 세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여 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미국보다는 노동시장이 경직된 유럽에서 저숙련 청년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벨기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한다. 벨기에는 실업으로의 유입과 유출 측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예를 들어 1990~1999년 월평균 직업 감소 비율은 전체 노동력의 0.5% 미만이지만 예상되는 실업 기간은 20개월을 초과하였다. 특히 벨기에의 높은 최저임금은 저숙련자를 임금 상실로부터 보호하는 실업 위험을 강화한다. 또한 노동 규제로 인해 고숙련자는 저임금 직업에 갇히게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침체가 저숙련자의 졸업 후 12개월 동안의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저숙련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근로소득을 약 4.5% 줄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고숙련자는 근로시간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시간당 임금과 근로소득에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근로소득의 부정적인 영향은 근로 경험과 함께 증가하였으며, 노동시장 진입 이후 10년 동안 근로소득의 약 6%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동거가 결혼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일본을 대상으로**

**Explaining the effect of parent-child coresidence on marriage formation: The case of Japan**

■ Yu, W. H., & Kuo, J. C. L. 2016. Demography, 53, pp.1283-1318.

세계의 많은 미혼 성인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와 함께 산다. 이러한 동거는 첫 번째 결혼으로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지연에 대한 정확한 이유들은 아직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을 대상으로 결혼한 적 없는 성인들의 거주 지위 변화가 그들의 결혼 갈망, 구애 행동, 연애 기회,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결혼 장애물들에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일본 생애주기패널조사(Japan Life Course Panel Survey)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2007년에 20~40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전국적인 표본을 구성한 이후 매년 추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고정효과모델로 분석함으로써 부모와의 동거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간 이질성을 통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연애 관계 형성의 낮은 확률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첫 번째 결혼으로의 이행 속도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결혼한 적 없는 사람들이 결혼을 원하는 정도가 덜하다거나 연애 상대를 찾는

노력을 덜 한다거나 부모와 함께 거주할 때 잠재적 파트너들을 만날 기회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집에서 사는 것이 결혼한 적 없는 남성에게는 그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만족을 증가시키고, 반면 결혼한 적 없는 여성에게는 성인의 역할로 이행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준비를 줄인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 연애 관계로 정착하는 것에 열정을 덜 갖도록 만든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의 시기 동안의 이혼의 예측 요인: 남아시아로부터의 증거**

**Predictors of marital dissolution during a period of rapid social change: evidence from South Asia**

■ Jennings, E. A. 2016. Demography, 53, pp.1351-1375.

서구에서는 이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매우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집단주의와 가족의 의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뿌리 깊은 가부장적 규범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이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실증 연구 없이는 이혼의 원인과 결과의 복잡한 요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의 대표적인 예로 남아시아 국가인 네팔의 시골 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 연구의 특징은 이혼의 과정과 이 과정이 사회적 배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을 개발한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네팔의 시골 지역에서 수행된 치트완계곡 가족 연구(Chitwan Valley Family Study)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결혼 해체를 예측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이 자료는 개인의 역사에 대한 회고적 자료이며, 분석 방법으로는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여자가 고령에 결혼하고 배우자 선택을 그들의 부모와 함께

한 커플들은 결혼 해체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근로는 결혼 해체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 기간이 길고 아이가 많을수록 결혼 해체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변화하여 왔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적 배경이 결혼 해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집단주의가 우선되고 가부장주의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이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